

2022년 개선된 세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

| 신산업 지원 확대,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 등
 | 상의 건의 과제 다수 반영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관련 조세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K콘텐츠 열풍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가업 상속을 용이하기 위한 일부 제도 보완도 이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개선과제를 건의했고, 이 중 일부가 반영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상의 건의 과제 중 실제 반영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작년까지는 기업의 R&D · 시설투자에 대해 [1]일반, [2]신성장 2단계 구조로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 반도체 · 배터리 ·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를 신설해 신성장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 비용의 6~16%(증가분 4% 추가공제)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반도체 · 배터리 · 백신 분야 34개 기술 및 31개 시설(예정)로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1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계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R&D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또한 확대되었다. 기존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더해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앞으로는 개별기술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돼 3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이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과 같은 OTT(Over The Top) 콘텐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작 비용의 3~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TV 방송 및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또한, 비용 인정 범위도 국내 제작 비용으로 한정되어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OTT 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OTT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률에서 OTT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조특법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논의 동향 및 시행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TV 방송, 영화의 해외 제작 비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 비용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사례로 보는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효과



제작사	(주)싸이런픽처스(중소기업)
흥행 성적	• 넷플릭스 역대 시청 시간 1위(16억 5천만 시간) • 넷플릭스 역대 시청 가구수 1위(1억 4천만 가구)
경제적 효과	약 1조 546억 원
제작 비용	약 253억 원(추정)
세제지원	(개정 전) 無 → (개정 후) 25.3억 * 제작 비용의 10%

자료: 넷플릭스, 조선일보

코로나19 피해부문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소급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으로 확대해 2019년~2020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결손이 발생해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한(12월 결산법인인 3월)에 신청하면 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기간 연장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도 연장됐다. 지난해까지 중견·대기업이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관세는 100% 면제받게 되어 있었으나 이 혜택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6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감면율	100%	80%	60%	40%	20%

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세 부담까지 가중된다는 우려로 관세 감면 혜택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하였다. 이에 따라 '24년까지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서는 작년까지와 마찬가지로 100%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약 91%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분납 기간이 5년으로 짧아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분납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돼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1년 이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세를 납부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한 해외사업장을 폐쇄, 양도하거나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 5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법인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신·증설을 완료해야 해 실질적으로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시행일이 1월 1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일('22년 1분기 중)인 만큼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은 시행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과세이연 일몰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는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로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말까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 종전과 같이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검토하는 기업은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

상의 건의 사항 외에 다른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 세제가 일부 확대되었다.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의 고용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세액 공제에 대한 단절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올해부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 규모와 근무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표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시사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 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별 기업들은 투자·고용 등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살펴 활용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제도는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워진 제도는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개한 법 개정 사항 이외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2022년 1분기 중 발표·확정되므로 세부적인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

신산업 지원 확대,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 등 경제계 요청 사항들이 개정세법에 반영된 것은 반갑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조세 제도는 많이 남아있다.

특히 신성장 분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구축을 위해 △세제지원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열거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신성장 개념에 부합하면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넷제로 기술을 포함시키는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민간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과제들도 중요하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해소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방식 변경(세액공제 → 소득공제) 등도 조속히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 구축을 위해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 등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 의견을 듣고 정부 및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22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

연번	종료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시 공제 금액이 100만 원 상향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15년 이내로 완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미환류소득 중 해당 년도가 아닌 이후 사업 연도에 환류하기 위해 적립금 설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감면 요건에 투자·근무인원 요건 추가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대상 확대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추가
[법인세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 1% 부과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사업 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규정 신설
[기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 지출한 개인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기본 20%, 1천만 원 초과분 35%로 상향 (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가산세율을 연 9.125%에서 연 8.030%로 완화

국내 · 외 경제지표

2022년 1월 기준

1. 국내 · 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20	2021 ^{IE}	IMF		OECD	
			2022 ^{IP}	2023 ^{IP}	2022 ^{IP}	2023 ^{IP}
한국	-0.9	4.0	3.3	-	3.0	2.7
세계	-3.4	5.6	4.9	-	4.5	3.2
미국	-3.4	5.6	5.2	-	3.7	2.4
중국	2.3	8.1	5.6	-	5.1	5.1
일본	-4.5	1.8	3.2	-	3.4	1.1
EU	-6.5	5.2	4.3	-	4.3	2.5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 · 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9	2020	2021	'2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56	1,186	1,189	1,160	1,170	1,183	1,183	1,184
원/엔(100엔)	1,060	1,051	1,033	1,056	1,061	1,045	1,036	1,040
원/위안	168.6	170.9	177.4	179.1	181.2	184.1	185.1	185.7
원/유로	1,305	1,346	1,353	1,366	1,378	1,372	1,350	1,338
유가(Dubai)	63.6	41.4	69.3	69.5	72.6	81.6	80.3	73.2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9	2020	2021	'2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생산	1.0	-1.2	-	5.9	1.4	4.8	5.3	-
소매판매	2.4	-0.2	-	3.8	3.6	7.4	4.6	-
설비투자	-5.7	6.0	-	12.6	-5.3	3.0	9.2	-
수출	-10.4	-5.5	25.8	34.7	16.9	24.2	32.0	18.3
수입	-6.0	-7.1	31.5	44.0	31.0	37.7	43.6	37.4